

##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예배와 기도:** 공동체 예배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그리고 예배 전 중보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2 창립 감사 축제:** 교회 창립 13주년 감사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공동체별, 선교회별, 개인 혹은 가족별 등으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7월 11일 (수) 오후 6시 장소 본당 및 Hall  
진행 1부: 예배, 2부: 축제 및 교제 담당: 교역자, 김수원 집사

**3 모임:** 예배 후에 바자회 준비를 위한 각 남녀 선교회 임원 그리고 행사진행부원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4 요청:** 각 공동체장이나 인도자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중보기도 함에 제출 바랍니다.  
주 중에서는 가정에서 수요일은 합심기도를 통해 함께 중보 합니다. (신청서: 본당 뒤)

**5 감사:** 오늘 점심은 터키공동체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후원:** 바누아투 삼마교회 학생들을 후원하시는 성도들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7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8 월례회:** 2남, 3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에 유아실, 아동부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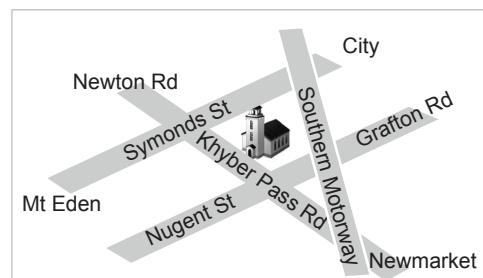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밀알장애인 봉사

오시는 길



2012년 6월 10일

14권 24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그 날의 미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현장으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례차례 가스실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독일 나치들은 매일매일 죽일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가스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가요니 체크라는 유대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독일군에게 매달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자신은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까지 있으니 죽을 수 없다며 제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자기가 끌려갈 예정일이 언제 일지는 몰라도 이 젊은이와 순서를 바꿔 달라고 말입니다. 독일 군인은 그리스도인의 청을 받아들여 그날 젊은이 대신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가요니 체크는 연합군이 해방시킬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72년 10월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한 그리스도인이 대신 끌려가면서 나에게 보내는 미소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미소를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나 대신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2천 년의 세월이 지난 2012년 6월 10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중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혹 그 원인이, 믿어야 할 만큼의 미소를 보여 주지 못하는 나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이라는 삶의 미소를 통해 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선언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05:1-3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다함께
※ 성시교독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다함께
대표기도	고성일집사
성경봉독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마지막 조건
찬송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다함께
※ 축도	정훈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6월 교회일정

### 삼위일체 주일:

6월 3일 (주일)

### 선교 수요예배:

6월 20일 (주일)

### 성찬 주일

6월 24일 (주일)

## ◎ 6월 예배봉사자

### 예배안내 :

이광희/이규임

###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김광자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이성희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덕철 집사

다음 주일 2부: 박형길 청년

6월 20일 수요기도: 민광호 집사

6월 20일 애찬기도: 이상재 집사

6월 24일 1부: 정진택 집사

6월 24일 2부: 장연식 집사

## 금주의 기도제목

- 국내: 점점 심각해져 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 서민들의 고충이 덜어지도록, 또 이 일을 주관하는 위원회들에게 현명하고 합당한 지혜가 임하도록. 인구비례당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이 나라가 음주 소비량이 줄어들고 특히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담습하지 않도록, 한인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적극적인 뉴질랜드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더 많은 힘을 쏟도록.
- 교회: 크고 작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마음이 상한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도록,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자리가 찾아지도록,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므로 가정적인 어려움이 해결 되도록, 성전 건물 구입이 온혜롭게 진행되도록.
- 국외: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모슬렘 극단 테러주의자들이 5개의 교회를 파괴하고 바우치 주에서는 4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나이지리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순교와 흡박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불꽃처럼 번져나가도록, 미국 뉴욕시에는 160여 개의 교회와 수백 개의 기도 모임이 공립학교 시설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뉴욕주 대법은 공립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 활동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는데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하고 첫 사랑을 회복하도록.

## 총회와 한국 방문 후기 2

이렇게 개운하고 상쾌 할 수가, 날아 갈듯 가볍습니다. 이른바 내시경을 마친 소감입니다. 다른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마치고 나면 어지럽고 종종 불쾌감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가끔 내시경을 해도 좋겠다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출타의 목적인 총회 참석차 시애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상이 되어 있는 스타벅스의 근원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보잉사의 본사가 있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알려진 그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뉴질랜드 출 사람인 난생처음 입국하기에 까다롭기로 이름난 미국땅에 도착하니 뭔가 모를 위축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권침해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문인식기를 통과하여 밖으로 나와 마중나온 목사님의 안내로 총회 장소에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40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뉴질랜드에 온 우리를 제일 먼 곳에서 왔다고 환영 일색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나라도 있느냐는 듯, 정글 속에서 살다가 문명 세계로 나온 부시먼(부시맨) 보듯 신기하게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뉴질랜드보다 더 먼 저 중남미의 파라과이를 비롯하여 독일,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주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 한인 디아스포라가 없는 곳이 없었기에 그 흘러진 사람들을 위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덕분에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듣고 생명이 살아나고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중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깨달음은 시차의 피곤함을 달래기에 충분한 감동이었습니다. 총회 첫날을 비몽사몽 간에 마치고 숙소에 누웠는데 통 잡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가까워 오는데 밖은 그제서야 땅거미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인가?

온혜 중에 총회를 잘 마치고 귀국을 하기에 앞서 시간을 내어 시애틀 시내를 돌아 보았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도시라는 공통분모와 함께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교회와 여러분들 생각이 간절히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볼일을 마친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어지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다는 잠재의식이 갈보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 이태한 목사